

# 광주시·전남도, 에너지밸리 조성 협의체 구성

### 이달중 TF 가동 ... 한전과는 다음달 협의회 운영

### 주력기업 유치 위한 대기업별 공동전담팀도 꾸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에 실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다.

21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이달 중 광주·전남 상생공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와 전남도 경제과학국 등 주무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해 월 1회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현안에 따라 시·도 관련 부서나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TF는 대선 공약 사업 추진에 서로 협력하고, 겹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도 협의한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을 국가혁신클

러스터 육성산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 접근을 위한 공동 모색도 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또 한국전력과 함께 다음 달부터 에너지 밸리 정책협의회도 운영한다. 기존에 부정기적으로 운영하던 협의를 정례화한 것이다. 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가속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실행한다.

한화큐셀, LS산전, 롯데케미칼, LG화학, LG전자 등 업체를 주도하는 이른바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기업별 공동

전담팀도 꾸린다.

정책협의회는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건의하고 지자체·전력기업·지방노동청 등의 참여로 인력 지원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사업을 추진해온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일부 나오면서 지역의 응집력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협력”이라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함평의 축산특화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함평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일대. <함평군 제공>

## 함평 축산특화산업 지역경제 새 성장동력 급부상

###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일대 '투자선도지구' 선정

### 2022년까지 국비 등 1382억 투입 6차 산단 조성

함평의 축산특화산업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6일 전남도와 함평군에 따르면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일대가 국토교통부의 '2017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됐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2015년 지역개발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촉진형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육성형으로 나뉜다.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국비를 지원받고 조세와 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의 규제 특례 혜택을 받는다.

이번 선정으로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평군은 이 사업을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선정, 학교면 사거리 일대에 군비 투입 없이 국비 100억원과 민간투자 총사업비 1382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32만㎡ 규모로 축산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한다.

함평군은 함평전지한우 등 지역의 청

정 농축산물을 지역 대표상품으로 육성하는 6차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또 축산 생산단지, 음식특화거리, 체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해 함평나비대축제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지도 육성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334개 신규 일자리 창출, 21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이 기대된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선정으로 함평의 근간산업인 농축산업 그리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2차 산업이 상승·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황원익기자 hwang@

### 광주 서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아

### 광주·전남 최초... 국내 12번째

광주 서구는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유니세프는 1989년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아동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지역사회에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한다.

서구는 국내에서 12번째, 광주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서구는 2015년 11월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이듬해 3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시민권,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교육, 건강과 위생, 사생활 등 6개 분야 58개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세웠다. 올해는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80여명으로 구성된 아동위원회를 꾸려 아동 의견을 행정에 반영했다.

임우진 서구청장은 “아동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면서 인증서가 주는 책임과 의무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홍희기자 kimhy@

### 전남 농업인 화합 한마당 고흥서 열린다

### 농업경영인대회 오늘 개막

전남 농업인의 화합 한마당 '제14회 전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고흥 팜영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한농연전남도연합회 주최, (사)한농연 고흥군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 1만 여명이 모여 농업·농촌 화생대회를 강구하는 화합과 단결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대회장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갑선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박병중 고흥군수를 비롯해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원 등이 대

거 참석한다. 이흥록 농업전남지역본부장, 윤석균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전남본부장 등 주요 농업관련 기관장들도 참석해 전남농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농업경영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대회 첫째 날에는 개최지 고흥군의 주요관광지를 둘러보는 버스투어를 시작으로 22개 시·군 노래자랑이 열리는 화합의 밤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 여건 속에서 한농연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시킬 방안을 찾는 '살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대응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삼성전자,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 협약식

광주시는 삼성전자, 광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와 21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2017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 협약식'을 가졌다.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로, 참가비만큼 삼성전자가 1:1 매칭해 기금을 조성. 지역 사회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 타 사업장은 2013년부터 추진해왔으나 광주는 올해가 처음이다.

'2017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은 오는 9월 23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남측 주

차장에서 연예인 공연, 다양한 부대 체험행사 등과 함께 품앗이수공원을 따라 3km를 걷고 걷기코스 구간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접수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 홈페이지(www.samsungwalking.com)에서 가능하다. 참가비는 5000원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정현 시장과 정광명 삼성전자 광주사회공헌센터장, 광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 김재규 부회장, 김상균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세월호 유류 피해 진도 미역

### 안전성검사 통과 전량 수매

### 수협중앙회, 678곳 4500만원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류 유출 피해를 입은 진도 동거차도 미역이 안전성검사를 통과해 수협을 통해 전량 수매됐다.

21일 국민의당 운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유류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동거차도 지역에서 생산된 미역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검사를 통과해 수협중앙회를 통해 전량 수매됐다.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완도 금일수협 위판장에서 시행된 수매에서 미역 678곳이 총 4500만원에 전량 수매됐다.

수매가격과 관련, 최근 3년간 1곳당 최고가격이 평균 12만원인데 유류피해 지역 입찰을 감안하고 판매 적정시기를 고려할 때 적절한 가격에 수매됐다는 평을 받았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위판금액은 수협중앙회에서 25일 진도군 수협으로 이체될 예정이며 진도군 수협에서 8월 중 각 어가로 위판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유류피해지역에서 생산된 미역이라 판매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지만 안전성 검사 통과는 물론이고 모든 미역이 수매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세월호로 인한 진도군 피해 보상에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